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8. 31.(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과수연구과장	고승찬	☎760-7400	
	업무담당자	정승용	☎760-7412	
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10-7514	

제주 육성 만감류, 온라인 유통으로 시장 넓힌다

- 9월 8일 농업기술원 대강당서 온라인 판매전략 워크숍 개최 -
- 온라인 도매시장·지역 판매 플랫폼 활용한 판로 다각화 모색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제주 육성 만감류의 유통채널 다각화를 위한 온라인 판매전략 워크숍을 오는 9월 8일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.

○ 이번 워크숍은 신품종 만감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판매·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, 다양한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.

* 연도별 재배면적 변화: '22) 2.6ha → '24) 20.1 → '26) 68.9

* 연도별 생산량 변화: '24) 4품종 15농가 21.4톤 → '25) 4품종 38농가 96톤

□ 행사에는 제주 육성 만감류 재배농가와 유통업체,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

○ 주요 내용은 △감귤 유통 트렌드 △온라인 도매시장 소개 및 판매전략 △‘e-Jeju’ 및 ‘서귀포In정’ 소개 및 판매사례 등으로 구성된다.

○ 특히 온라인 판매채널별 특성과 활용방안, 소비자 접근 방법, 실제 판매사례 등을 중심으로 농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통·마케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.

□ 신품종 만감류는 높은 품질과 체계적인 유통전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장 진입 가능성을 확인했다.

○ 품종별 평균 출하가격은 kg당 6,500~10,000원으로, 같은 시기

에 출하된 ‘황금향’, ‘레드향’, ‘천혜향’ 등 기존 만감류 대비 1.3~2.6배 수준을 2년 연속 기록했다.

○ 특히 13브릭스(° Bx) 이상의 높은 당도와 1% 미만의 낮은 산함량 등 품질 차별화와 함께 품종별 출하처 지정, 온라인·백화점 판매 등 다양한 유통방식을 연계한 것이 가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.

□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농가의 판매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.

□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“품종별 출하전략을 통해 제주 육성 만감류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확인했다” 며 “이번 워크숍을 통해 농가가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판매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제주 육성 만감류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에 힘쓰겠다” 고 말했다.